일본인이 지킨 미얀마 佛心

반출 위기 국보급 불상 301구, 다시 미얀마의 품으로

박영빈 객원기자

내전과 군부독재기간 중, 해외로 반출될 위기였던 미얀마 국보급 불상들이 한 일본인에 의해 미얀마로 다시 반환된 훈훈한 사연이 소개됐다.

일본 쿠마노 카츠유키(68) 씨에 의해 내전과 군부독재기간에 해외로 반출될 위기였던 미얀마의 국보급 불상들이 다시 미얀마로 반환됐다고 3월 31일 '산케이 뉴스'가 보도했다.

불상을 미얀마에 기증한 쿠마노 카츠유키 씨는 2007년부터 불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산케이 뉴스'에 전했다. 쿠마노 씨는 일본에서 배관장치 제조판매사인 '일본시스템기획'을 운영하는 한편 약 10년 전부터 일본에 유학중인 아시아권의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다. 몽골에서는 현지에 상업전문대학을 건립키도 했다. 그러다 2002년, 몽골서의 활동을 일단락하고 지인들의 소개로 미얀마와 인연을 맺게 됐다. 쿠마노 씨는 "2차 대전 중 미얀마에서 죽은 일본군이 많다는 것과 미얀마인들도 몽고반점이 있다는 말을 듣고 미얀마에 대해 각별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쿠마노 씨가 불상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이후 미얀마를 매월 방문하며 교육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2005년 미얀마의 옛 수도인 바간을 여행하던 중 운전수가 길을 잃었다. 그리고 무너진 동굴 같은 곳을 발견했다. 나중에 운전수가 무너진 파고다(불탑)라고 말한 것을 듣곤 호기심에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귀신의 얼굴 같은 것을 보곤 깜짝 놀라 뛰쳐나왔다."

쿠마노 씨는 미얀마 불상과의 첫 만남을 위처럼 회상했다. 당시 쿠마노 씨는 불상의 강렬한 인상이 뇌리에 깊게 박혀 귀국 후에도 계속 그때의 꿈을 꿨다고 '산케이 뉴스'에 증언했다.

쿠마노 씨는 "귀신인 줄 알던 것이 탑 속에 모셔져 있던 불상이었단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됐다. 그리고 그 불상과의 만남을 불탑을 복원하라는 계시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쿠마노씨는 그 후 2012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무너진 탑과 사원, 불상들을 복원했다.

탑 복원을 위해 조사 중이던 쿠마노 씨는 불상이 비합법적으로 중국이나 태국 국경을 넘어 반출됨을 알았다. 군부가 보시를 금지해 생활이 곤란해진 절이나 스님들에게 고미술상들이 접근해 불상을 반출하고 있던 것이다.



①기증한 불상들 사이에 서있는 쿠마노 씨. ②불상을 참배하는 신자들. ③기증된 불상중에 가장 오래된 석가모니불상. 사진출처=산케이신문

미얀마는 영국식민지 시대를 포함해 몇 백년간 귀한 불상들은 도난을 우려해 절 안 깊숙이 모셨다. 그런데 이런 불상을 내놓을 정도로 사원과 스님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쿠마노 씨는 불상이 암시장에서 반출되면 되찾기도 어렵고 미얀마의 문화유산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졌다고 한다.

쿠마노 씨는 2007년 처음으로 밀반출되던 불상을 구입해 보호했다. 이후 차례로 반출되는 불상의 정보가 들어왔고, 당시 양곤 시내에 큰 집을 빌려서 불상을 그 곳에 숨기고 혼자 예불을 올렸다고 한다.

2011년 미얀마가 민간정부로 이관이 완료되고 불상을 안심하고 공개할 수 있게 되자 불상을 공식적으로 모실만한 장소를 물색했다. 여러 기관과 사찰들과의 접선 끝에 2012년 10월 불교지도자 우 판다운타(U Pandda-Wuntha) 스님의 사원인 아웅 자부 테우야(aung zabu tawya)사원으로 불상들을 이운, 사찰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불상을 반환했다.

판다운타 스님은 "불상이 많다는 이야기만 듣고 보통 가정에서 모시는 작은 불상들이 있는 줄 알았다. 쿠마노씨의 집에 가보니 사람의 키를 훨씬 넘는 불상들과 역사적으로 중요한 불상들이 평범한 가정집에 모여있는 걸 보곤 매우 놀랐다"고 당시 소감을 말했다.

총 301구의 불상들은 15대의 트럭에 나뉘어 사찰의 대강당에 모셔졌고 2012년 10월 18일 공식적인 예불이 봉행되었다. 전문가들의 감정과 조사 끝에 불상 중엔 미얀마 최초의 왕조인 바간왕조(11세기)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도 다수 발견됐다. 2013년 봄부터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된 불상들은 차츰 입소문을 타고 '재팬 파고다'라는 이름으로 미얀마 전국과 인근 각국에서 순례자들이 모였다.

쿠미노 씨는 "원래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시간을 정해서 공개하였으나 각지에서 몰려드는 순례자들로 거의 매일 공개하고 있다. 현재 301구의 불상을 보호하면서 천천히 참배할 수 있도록 5층 규모의 법당을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다"고 앞으로도 미얀마 불교문화와 교육지원사업에 전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명代 반야경 발견 경매가 최고액 갱신

한화로 300억 넘어

명나라 선덕년간(1426-1435)에 금으로 사경된 반야경〈사진〉이 경매에 등장해 역대 불교 경전 최고가를 달성했다. 이는 명나라 선종(宣宗)의 칙명으로 15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23억880만7500홍콩달러(한화 약 322억3400만원, 4월 5일 기준)에 입찰됐다.

미국언론 '배론스(Barron's)'는 4월 3일 홍콩 소더비즈 경매서 역대 불서 경매 최고가를 달성한 반야경에 대해 보도했다. 선덕년제 금사경은 최근 발견된 것이 없어 그 가치가 더 높고 최근 불교가 세계적으로 중흥하며 이 같은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고 '배론스'는 평가했다.

명나라 선덕년간 당시에는 황제의 칙명으로 성승혜진(聖僧慧進) 금으로 경전을 사경했다. 주로 화염, 보적, 반야, 열반경의 4대부경을 사경했다. 그 중에는 〈대반야바라밀경〉이 있었는



데 이 중 남은 10권이 경매에 오른 것. 타베이 고궁박물관에 소장중인 〈대보적경〉과 〈대열반경〉을 제외하고 선덕년제 금사경이 최근에 발견된 것은 거의 없다.

이번에 발견된 경전은 양뇌전(羊腦箋)에 금니로 글자가 써 있으며 필체가 깔끔해 '마치 구름에 떠 있는 듯 수려하다'는 평을 받았다. 양뇌전은 종이의 종류로, 쪽물을 들인 종이를 다시 한 번 가공한 중국 황실 전용 종이다. 명나라때 시작됐으며 보통 사경할 때 사용됐다.

경매를 주관한 소더비는 17%년부터 정기적으로 경매를 진행돼온 고서적, 미술품 대표 경매처다. 소더비는 이 작품의 구매자를 밝히지 않은 한편 "이번에 고가의 경매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불서의 문화재적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요즘 아시아 문화권의 골동품이 비싼 값에 경매되고 있는 추세기도 하다. 이런 흐름은 아시아 문화와 불교가 미국서 인기가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요즘의 예술 시장은 거의 아시아권이 주름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조동종 첫 백인 여성 禪師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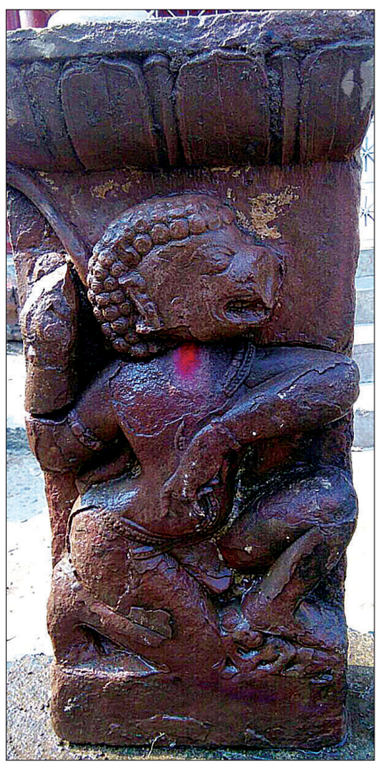
일본 선불교 중 가장 중요한 사찰로 꼽히는 에이헤이지(永平寺)사찰서 일본 첫 서양 여성 출신 선사(禪師)가 나왔다.

미국 불교 전문지 '라이언스로어'는 4월 3일 첫 서양 여성의 선사(禪師)가 탄생했다고 보도했다. 그 주인공은 백인인 조앤 할리팩스(Joan Halifax) 스님〈사진〉이다. 할리팩스는 에이헤이지서 불교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할리팩스가 선사로 선정된 된 에이헤이지는 일본 선종의 가장 큰 학파인 조동종의 총본산이다. 에이헤이지에는 현재 200여 명의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 일본서 가장 큰 선불교의 교육장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박진형 기자

사자 얼굴 여성본존 인도서 발견 '화제'



8세기경 밀교불상 추정 후속 연구 진행되고 있어

동인도 오릿사(Orissa)주의 삼발푸르(Sambalpur)에서 인도불교가 가장 흥성했던 8세기 경의 밀교 불상이 발견되었다고 3월 25일 '오릿사 포스트(Orissa Post)'가 전했다.

인도 미술문화유산 재단(INTACH)은 삼발푸르시의 자르수구다(Jharsuguda) 구역에서 최근 희귀한 밀교불상인 심하무카 다키니(Simhamukha Dakini) 불상〈사진〉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심하무카 다키니는 사자얼굴을 한 여성본존을 말한다.

발굴된 불상은 돌로 조성됐으며 발굴 당시 목과 몸이 분리돼 있었으나 형체는 거의 원형에 가까웠다. '인타크(INTACH)'의 연구임원인 디팍 판다(Dipak Panda)는 "이 불상은 재단의 발굴팀이 자수르구다 계곡의 고고학 조사중에 발굴됐다. 현재 건설 중인 자르수구다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불상의 도난과 추가발굴을 위해 정확한 위치는 공개할 수 없지만 현재 학자들이 후속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판다 연구원은 "심하무카 다키니의 발굴은 이 지역이 고대에 인도에서 불교가 흥성하던 곳이란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이 지역의 역사를 새로 쓰는 발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불상이 발굴된 삼발푸르 지역은 고대 문헌과 최근 연구조사에서 티베트에 처음 불교를 전한 스승 파드마 삼바바(Padma sambhava)의 주요 활동지로 밝혀졌다. 또 파드마 삼바바의 가르침을 따르는 티베트 불교의 닝마(Nyingma) 종단이 심하무카 다키니의 수행법을 현대에까지 전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굴은 특히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인타크'는 "이 지역엔 고대의 조각품들이 다수 매장돼 있다. 지금껏 우연히 발견되거나, 공사 중 출토된 조각들은 모두 지역 사원으로 옮겨졌다. 힌두사원에서 불상들은 힌두교의 신상으로 오해되어 모셔지고 있기에 더욱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16세기 중반에 지역이 대대적으로 재개발되면서 발견된 불상과 신상들에 대한 현대 고고학적 정밀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발견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판다 연구원은 "고대 문헌에 파드마 삼바바의 출생지를 우디야나(Uddiyana)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이를 오릿사의 어원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오릿사주야 말로 고대 인도불교의 중심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서구학계는 이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인타크'는 현대 파키스탄의 스와트(Swat) 계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서 이 불상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 정밀한 연구와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사주 명리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사주공부의 바르고 가장 빠른길!

맹파명리!

《맹파명리》 책에 수록되어 있는 빈주(賓主), 체용(體用), 형(形)과 기(氣), 주공(做功), 간지허실(干支虛實), 상법(象法), 지지의 천(穿), 파(破), 정국(正局)·반국(反局) 등을 통하여 기존 전통명리와는 다른 맹파명리의 촌철살인의 판단방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맹파명리》를 통하여 그동안 잃어버렸던 명리학에 대한 경외심과 신심을 회복할 것이다.



명불허전, 최고 절정의 맹파명리

사주 명리계에 있어서 중국 본토를 완전지배한 맹파명리! 한국 상륙!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지식인의 최고찬사 맹파명리.
새로운 개념, 새로운 논리로 길흉을 정확히 해석해 내는 맹파명리!

맹파명리를 통하여 명리(사주)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다는 한결같은 찬사!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8시 (저자 직강)
- 맹파입문반, 혼인반, 재관반, 직업반, 간지상법반, 음양풍수반 순환주기로 강의
- 강의장소 : 1호선 종로3가 2번 출구 바로 앞 유니클로 옷가게 좌측 영흥빌딩 502호
- 강의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

Daum 카페 : "맹파명리" 검색

○ 직접 택배로 받아 보실분은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송금 바람.
○ 구입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 입금계자 : 국민은행 638702-01-372376 (예금주 : 박형규)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